

기업하기 좋은 경북도, CES서 IoT 등 '혁신기술' 뽐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 방문단 구성
경북도 지원 기업체 13개사 참가
경북도관 운영...글로벌 계약 성과



CES혁신상 받은 포항의 망고슬래브의 머리 매직기를 홍보하고 있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가운데).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해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대표로 도 관련 부서와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 지역 참가 기업체를 격려하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경북을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서 운영되는 CES2023 경상북도관에는 지역 업체인 세영정보통신, 모비프렌, 안켄 등 총 21개사가 있으며, 기업R&D지원, 제품상용화, 스타트업 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 등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체는 13개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VR, IoT, 스마트시티 서비스기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여 해외시장 판로확

대, 수출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파트너와 연결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특히, 원소프트다임(대표 이대호)은 체지방을 장소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용 피트니스와 망고슬래브(대표 정용수)에서 개발한 헤어기기는 경쟁사 대비 열제어 시스템, 기능 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인다. 이는 영국 D사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

한 프리미엄 무선 헤어스트레이너로 CES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 지역 기업체인 포스코그룹(POSCO홀딩스)에서도 박람회에 참가한다. 포스코그룹의 전시관 규모는 지난해 보다 2배로 넓어진다. 1조원 규모의 벤처플랫폼을 통해 지원한 벤처기업 19개사도 포스코그룹 전시관 내 개별부스를 운영하며 기업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 올해로 벌써 3번째 참가하게 됐다. 도와 함께 CES에 참가한 기업체들은美 현지 뿐만 아니라 행사 후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계약 성과를 이뤘다"면서 "경북에는 세계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 도는 기업체들의 핵심기술 개발, 신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 등 아낌없이 지원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경제부지사 방문단은 이달 8일까지 CES2023경상북도관 참관후 애플美본사를 방문해 애플 제조업R&D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 등 상생협력사업 확대와 후속발전 사업을 논의한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 미국 버팔로 및 뉴욕을 잇달아 방문해 도내 주력 산업 투자유치활동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50세 이상 주민건강검진비 지원

영양군은 1월 10일부터 50세 이상 영양군 주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군민건강검진비 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원(풍력발전기금 19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영양군은 건강검진에 취약한 군민들이 일반건강검진 외 추가적으로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밀양시 '읍면동 방문 주민과 대화' 진행

밀양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올 한 해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점에 둔 이번 읍면동 방문은 박일호 시장이 10일 무안면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현안 중심의 읍면동정 보고, 시정 현안사항 설명, 자유로운 대화를 중점에 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신안군,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

신안군은 지난 1월 5일 군청에서 관내 드론 보유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이착륙시설 품평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드론 이착륙시설은 1톤 화물차에 드론을 고정하여 기존 2인 1조 드론방제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방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힘든 육체노동 및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동 중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여 1일 방제가 면적확대에 따라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영덕군-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 나눔캠페인 '활발'

영덕군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 관내 기관·단체와 군민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4일 ㈜영덕버스(대표이사 박영규)가 성금 300만원을 영덕군에 전달할 것을 비롯해 영덕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현규), 팔각산친환경절임배추 영농조합(대표 백운영), 서남사 신도회(주지 현담스님), ㈜아름다운집 청소박사(대표 정은선)가 각각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승인

남해군, 농업 경쟁력 제고

식량산업분야 국비사업 우선지원
지역별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량산업 5개년(2023~2027년)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남해군은 이번 승인을 통해 향후 5년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일환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및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 식량산업분야 국비사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지역단위 식

량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벼 적정재배 면적유지 ▲밭작물 육성을 통한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별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 농가 조직화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등 시설운영 효율화 등이 추진된다.

남해군은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해 2021년 장충남남해군수를 위원장으로 행정, 농협, 밭작물작목반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 바 있다. 식량산업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서면·현장·발표 3단계 평가를 통과하였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구 호텔인터볼고에서 '2023 영남권 신년인사회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대구서 영남지역 신년인사회

각계 주요 인사 700여명 참석

영남지역 각계 주요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구 호텔 인터볼고에서 지자체·국회·유관기관 중소기업계 등 영남지역 각계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매년 권역별로 열리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

/김승호 기자 bada@

산청군, 보훈대상자 도내 최고수준 예우

보훈대상자 보상 확대

산청군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 참전)와 보국수훈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상을 확대한다.

군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80세 이상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0세 미만 월 17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보국수훈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매달 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가구

당 월 120리터 이내)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했던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전에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산청군 보호수당 지원 대상자는 약 935명이다. 또 2022년 12월 기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301명으로 6.25 참전유공자 109명 월 남 참전유공자 192명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영양 지역기업, 이웃에 사랑의 손길 '훈훈'

전원·한신전기, 싱크대 등 교체 도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가 있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월 9일 인테리어 전문회사 전원은 영양읍 동부리 지체장애자가정 김모씨(여, 65세) 가정을 방문하여 낡은 싱크대를 교체하였고(취한신전기는 노후돼 칙칙하고 어두웠던 주방과 거실을 화재경보기 및 조명으로 교체, 환하고 밝은 실내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번 재능기부는 싱크대와 조명이 많이 낡아 교체할 시기가 지났으나 형편이 어려워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영양군, 임형수 환경보전과장이 평소 친구이었던 전원

의 서영복 대표의 재능기부 의사를 확인하였고 여기에(취한신전기 이준일 대표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졌다.

김모씨(여, 65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는데 싱크대와 화재경보기 및 조명을 새 것으로 바꿔주셔서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밝아져 기분이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영복 전원 대표와 이준일(취한신전기 대표)는 "싱크대와 화재경보기 및 조명을 교체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며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